

## 보도자료

2010년 1월 29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제협력관 국제기구담당관실 해외진출추진팀 최준호 팀장(☎ 750-1760)

해외진출추진팀 전성훈 사무관(☎ 750-1761) jccprk@kcc.go.kr

## 최시중 위원장,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 면담

-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월 29일(금) 라울 센딕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 마르틴 디바르부레 기획예산처장, 에드가르도 오르뚜뇨 하원의원을 만나, 한국의 정보통신분야 경험과 기술·서비스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양국 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는 산업, 에너지, 광물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정책도 담당

이번 면담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확충에 적극 노력한 결과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유한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WiBro 등 우리나라 방송통신 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하면서, 특히 WiBro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우루과이에서 WiBro 주파수를 조속히 할당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파트너로 적극 고려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라울 센딕 장관은 '08년 8월 타바레 바스케스 우루과이 대통령 방한 이후 양국 간 관계가 돈독해 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루과이 국가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통신 분야를 살펴보고 벤치마킹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센딕 장관은 양국의 방송통신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MOU 체결을 제안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센딕 장관 일행은 29일(금) 오후에는 삼성전자를 방문하여 WiBro 기술을 견학하고, 2월 1일(월)에는 LS전선과 LG노텔을 방문할 예정이다. 끝.